

태양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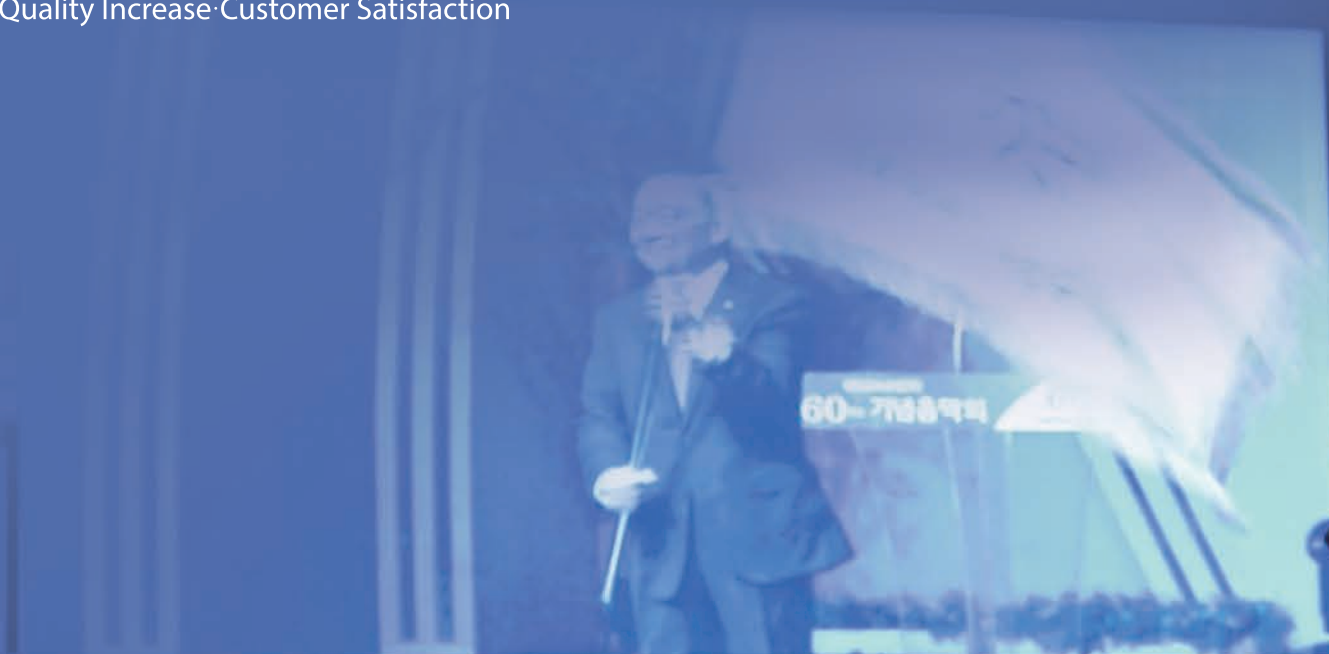
TAEYANG METAL INDUSTRIAL 2014



"New Story"
신뢰와 창조

TAEYANG METAL INDUSTRIAL CO., LTD.

Technical Development · Quality Increase · Customer Satisfaction



태양금속공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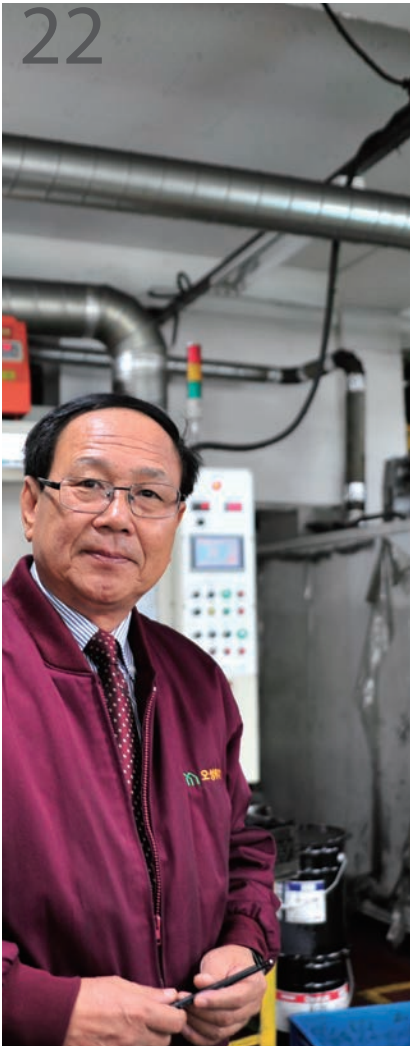
창립 60주년 기념음악회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기업 - 태양금속공업(주)



태양금속 60주년 기념음악회
기념음악회는 태양금속이 걸어온 창립 60주년을 축하하고 태양가족 모두가 하나가되는 화합의 장으로서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이야기 즉, New Story를 창조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협력업체탐방
오성케미칼 김종구 대표 인터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위치한 오성케미칼은 우리나라 뿌리산업의 대표 업종 중 하나인 금속 표면처리업체로 1984년 설립, 올해로 3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발길 따라서
햇볕 따뜻한 날에 군산을 만나다
특별히 휴가를 내지 않고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곳. 연인과는 그린라이트를 켜고, 아이들에게는 꽃보다 아빠가 되고, 친구와는 없던 우정도 만들어 줄 만한 그런 곳- 낭만이 있는 곳 '군산'을 소개한다.

C O N T E N T S

Company Magazine of
Taeyang Metal Industrial Co.,Ltd. vol.4



태양금속공업(주)'태양가족'사보
발행일 2014년 9월 22일 **발행인** 한우삼
발행처 태양금속공업(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212 031)490-5586
편집위원 박원곤·이일두·강문호·이정구
허제·이준영·변관홍·이승연·강승구
www.taeyangmetal.com
기획·편집디자인 큰하늘 031)402-0876
E-mail, gsky21@hanmail.net

04	창업주의 가르침 최고는 못되어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06	회장님 사외동정 제113회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회 개최 외
08	태양60주년 기념음악회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이야기, New Story 창조
10	태양뉴스 뿌리기술 전문기업 평가 및 지정 외
12	태양OB동정, 해외법인 명예회장님 산소 참배, 연대·장가항 법인 소식
14	해외법인인터뷰 장가항 법인 조용훈 총경리 인터뷰
16	기획특집 1 제품결함 0%도전한다
18	기획특집 2 금형을 위한 고신뢰성 강의 개발
20	기획특집 3 2014 상하이 자동차 부품전시회를 마치며
22	협력업체탐방 오성케미칼 김종구 대표 인터뷰
24	문화와 예술 '단원도'에서 찾은 김홍도와 두 사람
26	발길 따라서 햇볕 따뜻한 날에 군산을 만나다
28	신입사원소개 우리회사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30	사우동정 입사 및 인사발령



최고는 못되어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더욱 잘하는 사람
평범속에서 비범을 찾으며 산다.
이는 인생의 승리의 길을 가져온다.

모든 일에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

같은 일을 하더라도 기본기가 튼튼하여 다른 사람 보다

훌륭한 성과를 내는 사람!

탁월한 관찰력과 창의력으로 보통의 상식에서 특별한 경우를

찾아내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성공의 방정식입니다.

창업주이신 한은영 명예회장님께서 전해 주시는

인생 선배로서의 경험은 우리가 닮고 계승해야 할

태양금속의 고귀한 자산입니다.

『1983년 10월 1일 조장 이상 회의 훈화 말씀에서』



2014년 9월 11일(목)

경기도상공회의소 연합회 월례회의 개최

안산상공회의소(회장 한우삼, 이하 안산상의)는 지난 9월 11일(목) 안산에 소재한 제일CC에서 경기도 22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모이는 '경기도상공회의소 연합회 월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월별 22개 상공회의소가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개최되는 경기도상공회의소 연합회 월례회의는 회장단 이외에도 지역내 각 유관기관장도 참여하여 지역의 경제현황을 파악하고 상호 협력하여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자 개최되고 있으며, 안산상의에서는 지난해 3월에 이어 금년 9월에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회의를 준비한 한우삼 안산상의 회장은 “각종 수도권 규제로 인해 시설확충에 어려움을 겪던 많은 중견기업들이 규제가 없는 지방으로 이전했고,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중소기업들은 자금 확보를 위해 지금의 공장 부지를 매각하고 용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으로 빈번이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안산·시흥·삼천포·하남의 상황을 설명하고, “세월호 침몰사고로 안산지역은 5개월 동안 추모와 애도속에 안산경제는 침묵하였다.”며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말했다. 이어, “안산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유일한 경제단체인 안산상공회의소가 앞장서, 기업과 근로자가 하나 되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각종 세미나 및 행사를 실시할 것이다.”라고 의지를 나타내었다.



2014년 9월 24일(수)

113회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회 개최



안산상공회의소(회장 한우삼, 이하 안산상의)는 9월 24일(수) 한양대학교 게스트하우스 컨퍼런스홀에서 「감성의 끝에 서서 나의 르네상스 만들기」를 주제로 「제113회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찬강연회에서는 안산관내 유관기관장 및 기업인들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신장 대표이사(주)모네상스)의 강의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를 주관한 안산상의 한우삼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불과 50여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자동차, 휴대전화 강국으로 불리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초고속 성장하였으나, 기술력과 품질에서는 독일, 일본등 선진국보다는 떨어지고, 원가경쟁에서는 중국에 뒤처져, 샌드위치 패널에 갇혀 있다.”고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설명하고, “국경없는 글로벌 경쟁은 남들과 같은 생각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창조적 사고방식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이날의 강의를 마련한 의미를 설명하였다

2014년 10월 6일(월)

제 3회 ‘사랑나눔’회원 친선 골프대회 개최



안산상공회의소(회장 한우삼, 이하 안산상의)는 지난 10월 6일(월) 대부도 아일랜드C.C.에서 '제 3회 사랑나눔 회원 친선 골프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산상의 회원사 임직원 160명, 총 40개팀이 경기에 참여했다. 안산상의 한우삼 회장은 환영인사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경영일선에서 불철주야로 구슬땀을 흘려 오신 상공인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고, 서로 덕담과 격려를 나누며 친목을 다지고자 마련한 교류의 장”이라고 말하며 행사 취지를 설명하며, “글로벌 경기 침체 뿐만 아니라 그 어느 해보다 경제상황이 어려웠던 만큼,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스스로 용기를 북돋우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였다. 이날 개최된 골프대회는 40개팀이 동시에 TEE UP하는 ‘샷건’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 후 안산상의 한우삼 회장은 “ ‘사랑나눔’ 회원친선 골프대회가 3회에 접어들면서 단순한 친목도모의 연례행사가 아닌 지역 상공인이 뜻 깊은 일을 함께 실천하고 나누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행사로 의미를 더하게 되었다.”며 소감을 전하고, “참가비는 전액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마음을 공유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고 밝히고, 고려인지원센터 ‘너머’, 새터민 청소년 생활공동체 ‘우리집’, (사)안산시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에 각각 500여만원 상당의 성품을 전달하여 ‘사랑나눔’ 회원 친선 골프대회의 의미를 더하였다.





“New Story” 창조

태양가족 모두가 하나 되는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참석해주신 많은분들을 뵈게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태양금속 창립60주년 기념음악회를 사랑하는 태양금속과 계열사 임직원 및 가족여러분들과 함께 자리를 갖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국회의 바쁜신 일정중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김영환 국회의원님과, 안산교육지원청의 객진현 교육장님을 비롯한 유관기관 기관장님들과 태양금속의 OB회원님들, 그리고 협력업체 대표님과 임직원 가족 여러분께도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태양금속이 여기에 있기까지 열정과 애사심으로 회사에 공헌하고 지켜 오신 모든 태양금속의 선배님들과 현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일은 태양금속공업주식회사의 창업 6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신故한은영 명예회장님께서서는 해방되기 이전 일본에서 생활하시면서, 나라와 국민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셔서 우리민족 기미독립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1954년 삼일절인 3월1일에 회사를 창립일로 정하셨습니다.

창립60주년의 긴 세월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대·내외적인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며 수많은 위기와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였고,아울러 영광의 순간들도 경험할수 있었던 것은 설립자이신故한은영 명예회장의 기업 이념이신 “신뢰와 창조”를 바탕으로 전 임직원 모두가 신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실천하였기에 오늘날과 같이 태양금속의 건재한 모습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업체로서의 위상을 높일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직원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태양금속의 품질5스타 인증업체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60년을 넘어 100년, 200년 이상의 미래를위해 “술개가 생존을 위해 고통속에서 부리와 발톱을 깎듯이” 계속해서 혁신과 변화를 바라는 바입니다.

태양가족 여러분!

2014년 세계경제는 미국의 제조업 중심으로 미약한 경기 회복세는 감지되고 있으나, 일본과 일부 유럽국가들과 상품수출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재차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경기는 정부의 내수 활성화정책의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소비력 감소와 가계 부채 부담등의 영향으로 미미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금속은 글로벌 체제의 강화와, 신규투자를 통한 사업다각화 및 영업마케팅 확대를 통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한계사업은 과감히 청산하는 등, 경영혁신 활동을 지속하여 왔으며, 글로벌 냉간단조 선두업체의 위상에 걸맞게 이미 충청북도 음성에 5만여평의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신공장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양금속 성장을 위해 국내 본사를 비롯해 중국의 연대법인과 장가항 법인 그리고, 인도의 첸나이법인과 미국 디트로이트의 북미법인과 주식회사 쉐테크와, 주식회사 프라이맥스 등 계열사들을 포함해 매출1조 원 달성을 하기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시는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태양가족 여러분의 역량과 저력으로 모든 목표가 빠른 시일 내에 달성될 수 있을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 해 국내외 자동차업체는 품질문제로 대량 리콜사태를 겪으면서 기업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고,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등, 경영상 충격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큰 문제는 고객의 외면에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품질이 나쁜 자동차를 어느 고객이 구입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회사의 품질에 대한 경각심을 한 번 더 느끼는 한계가 되었고, 품질의 중요성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것이며 회사의 존폐와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유유히 흐르면서 승자와 패자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60주년을 맞이한 이 순간에도 태양금속은 큰 풍랑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면 도태되고 마는 것이 냉혹한 시장의 법칙이며,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는 기업만이 미래가 있을뿐입니다.

오늘 제가 당부드린 말씀은 회사가 성장 발전하기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꿈은 머리와 마음이 아닌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환갑에 비유되는 60갑자를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가짐과 제2의 창업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로 삼고, 당부 드린말씀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가족 여러분! 오늘 기념음악회는 태양금속이 걸어온 창립 60주년을 축하하고 태양가족 모두가 하나가되는 화합의 장으로서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이야기 즉, New Story를 창조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제 잠시후에 시작되는 축하공연에서 우리 임직원 및 가족 여러분께서는 출연진 모두에게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환영을 해 주시기 바라며 출연하시는 분들도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활기가 넘치는 에너지를 듬뿍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성으로 즐거운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흥겨운 공연을 통해서 그동안 쌓였던 피로들을 다 풀어버리시고 내일을 향한 감동과 에너지를 가득 담아 돌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15
회장 한 우 삼

TAEYANG NEWS

2014년 9월 2일(화)~3일(수)

뿌리기술 전문기업 평가 및 지정



지난 9월 2일(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위한 현장 평가단 3명이 당사를 방문하였다. 그 간 제출했던 서류와 실제 현장 평가를 통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자격 유무를 평가하는 자리였다. 전 임직원의 노력으로 당일 경기도 중소기업청을 통하여 평가 완료 및 전문기업으로 확정되었고, 9월 3일(수)부로 우리 태양금속공업(주)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증이 발급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http://www.root-tech.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9월 30일(화)~10월 10일(금)

TPM 도입교육 시행



이번 교육으로 인하여 당사의 문제점을 되돌아 볼 수 있었으며, TPM우수기업 효성의 사례를 통하여 TPM 활동의 필요성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14년 9월 30일(화)~10월 10일(금)

태양협력회 현대차 아산공장 방문



태양협력회는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10월 20일(월)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현대차 아산공장에 방문하였다. 정연욱 상무를 포함한 우리회사 임직원 및 협력회 인원 40여명이 참석하였고, 홍보영상 관람을 시작으로 프레스공장→차체 조립공장→의장공장을 순서로 공장견학을 하였다.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협력회의 품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현충사 방문 및 식사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4년 10월 8일(수)

산업혁신3.0 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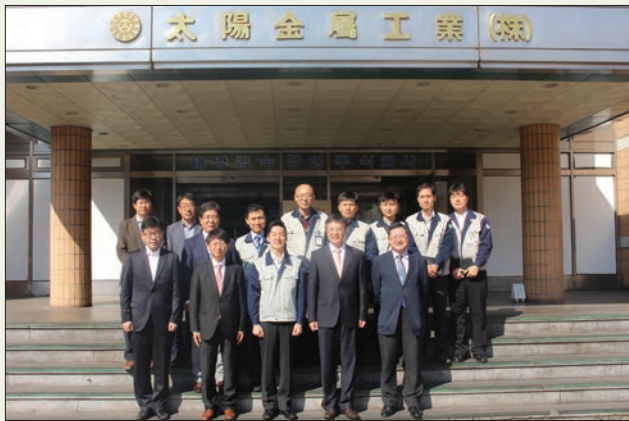


한성훈 사장은 10월 8일(수) 서울 마포에 위치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회에서 2, 3차 협력사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제2차년도 중견기업 산업혁신3.0'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차년도 사업에는 10개 중견기업이 7억 6,500만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출연 재원은 33개 중소기업의 혁신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중견기업 출연금에 대해 대기업 동반성장기금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가 지원돼 투자금액은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2차년도 사업은 1차년도 사업 프로그램인 협력사의 공정·경영·기술 등의 생산성 혁신 지원에서 한단계 높여 ▷ICT융합 스마트공장 도입 ▷심화된 생산기술 컨설팅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지원 등 협력사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2014년 10월 28일(화)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 방문



10월 28일(화), 자동차부품연구원(KATECH)의 허경 원장 외 6명이 당사를 방문 하였다. 이날 한성훈 사장 참석하에 기술연구소 주관으로 회사소개, 공장견학 및 공동 제품개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자동차 전문기술인력과 연계하여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 분야 모색과 신기술 개발 분야에 대한 협의 등 다채로운 분야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상호간의 유기적인 업무 체제 수립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TAEYANG NEWS

2014년 10월 28일(화)

신입사원과 선배사원과의 '나눔의시간' 개최



우리회사 13기 신입사원과 선배사원과의 '나눔의 시간'이 10월 28일(화)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이한세 부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선물(책)증정, 신입사원소개 및 포부, 회식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임원 및 선배사원들은 신입사원들에게 회사의 발전, 직장생활을 위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행사에 참여한 신입사원 모두는 태양가족의 일원임을 느끼며, 우리회사의 더 큰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 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2014년 11월 3일(월)

2014 GM Supplier Quality Excellence Award 수상



11월 3일(월), 한성훈 사장은 2014년 한국GM 경영현황 설명회 및 협신회 워크숍에 참석하여 GM으로부터 "2014 GM Supplier Quality Excellence Award"를 수상하였다. 이 상은 GM에서 매년 엄격한 품질 기준에 초점을 맞춰 품질, 기술, 납품 등 다양한 부문에서 최고수준을 달성한 협력사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우리회사는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업체로 높이평가 받아 2012년, 2013년에 이어 금년까지 3년 연속으로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4년 10월 28일(화)~30(목)

통합내부검사 실시



우리회사는 ISO 14001 및 OHSAS 18001의 인증유지를 위하여 10월28일(화)~30일(목) 3일동안 통합 내부심사를 실시하였다. 회사의 환경 및 안전보건에 관련된 모든 활동이 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고 시스템을 유지, 개선하고자한 이번 통합내부 심사는 박천옥 심사팀장 외 5명의 심사원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또한, ISO 14001 및 OHSAS 18001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014년 10월 29일(수)

단국대학교 창조다산 링크사업단 방문



10월29일(수),단국대학교 창조다산링크사업단 소속 유선준 교수, 조교 및 학생 3명이 당사를 방문하였다. 방문단은 현재 '고강도 볼트 가공을 위한 이론 및 공정 이해'라는 과목을 지도 및 이수 중인 관계로 실제 볼트 제조공정에 대한 교육 및 현장 견학을 하였다. 참석자들은 그 동안 책과 자료만을 통해서 공부해오던 볼트 제조공정의 이해에 대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볼트의 기초 이론, 제조 공정, 기계적인 시험 방법 및 열처리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당사의 배려에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였다고 화답하였다.

2014년 11월 15일(토)

창립 60주년 기념음악회 개최



우리회사는 지난 15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김영환 국회의원, 안산교육지원청의 곽진현 교육장, 태양금속의 OB회원과 유관기관 임직원 등 1,300여명을 초청해 "창립 60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창립 60주년이 있기까지 열정과 애사심으로 회사에 공헌하고 지켜온 태양금속의 선배들과 현 임직원들의 화합을 위해 마련됐으며, 식전 행사(전자방명록, 히스토리존, 포토존)와 1, 2부로 나뉘어 진행 되었다. 1부는 60주년 인트로 영상을 시작으로 레이저 쇼 및 너버벌 공연(Drum Cat), 축하 기념식(60년 경과보고, 기념사, 축하 등), 샌드아트 퍼포먼스(지화)로 구성되었다. 또 2부에서는 KON, 스위트트리, 파스타, 퀸비즈, 오승근, 소찬휘, 김경호, 장윤정의 공연과 행운권 추첨 및 사가제창으로 구성되었다. 출연자 한명 한명이 공연을 마칠 때 마다 '앵콜'이 요청되는 큰 감동과 즐거움이 이어졌고, 특히 이날의 피날레를 장식한 장윤정은 재치있는 입담과 무대매너로 관객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약 3시간동안 이어진 이번 행사는 무엇보다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014년 9월 13일(토)

故한은영 명예회장님 산소 참배



지난 9월13일(토), 추석을 맞아 태양OB가족들은故한은영 명예회장의 산소를 참배하며 고인의 명복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고인은 회사 창립 시 “창립자인 본인을 포함한 모든 종업원과 그 가족까지 모두가 회사의 가족이다.”라는 원칙을 세웠으며,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가족개념으로 종업원과 동고동락했다. 이러한 기업경영방침으로 가족이라는 일체감을 심어주었기에 이날 모인 태양OB가족들 또한 가족의 마음으로故한은영 명예회장의 산소를 찾아 자신들이 받은 감사함을 회상하며 고인을 추모하였다.



홍승국 윤삼노 양기인 문재선 김화일 강춘길 최명식 홍성문 이득선
김운학 이흥수 전철상 정대규 백기환 장흥석



사진촬영 : 채명철

태양금속의

2014.10.30(금)

2014 현대기아 산동지역 협력사 파트너쉽 참가

지난 10월 30일, '2014년 현대기아 산동지역 협력사 파트너쉽'에 연대 태양금속의 대표로 이병욱 총경리가 참가하였다. 이번 파트너쉽은 산동지역협력회 33개사 총경리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현안에 대한 간담회가 이루어졌다. 또한, 상호간 신뢰를 기반으로 올해의 고무적인 성과와 내년의 변하지 않는 협력관계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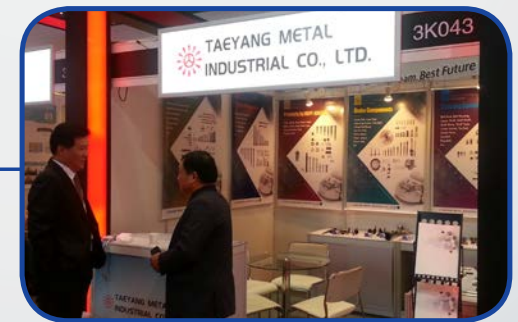


장가행법인의

14.10.19(일)~21일(화)

중국 상하이 국제 자동차부품 엑스포(CIAPE)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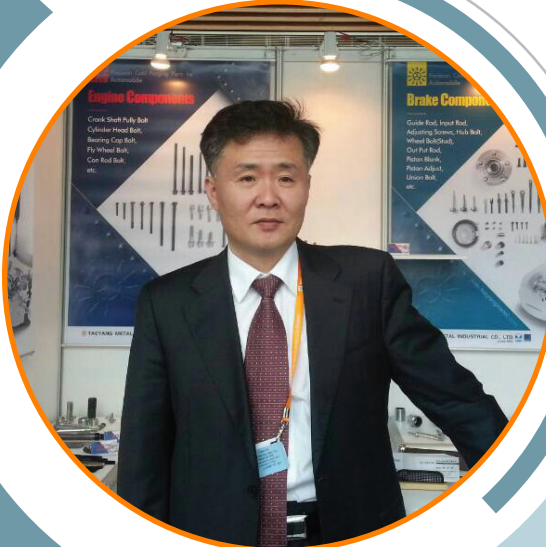
10월 19일(일)~21일(화), 3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한 “2014 중국 상하이 국제 자동차부품 엑스포(CIAPE)”에 장가항 법인 조용훈 총경리와 연대법인 김학태 부장, 그리고 본사의 이두원 사원이 참가하였다. CIAPE는 매년 중국에서 열리는 가장 규모가 큰 전시회로서 참가업체들은 지난 1년간의 탐과 열정으로 빛어낸 기술과 제품들을 뽐내는 자리다. 우리회사도 이번 전시회에 참여함으로써, 세계에 태양금속의 기술과 제품을 알리는 동시에 세계 자동차 미래 동향과 기술을 경험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장가항 법인 조용훈 총경리

Interview

INTERVIEW



Q 처음 장가항 왔을때와 현재 장가항 법인의 발전상은?

A. 처음 장가항 법인에 왔을때에 임대공장에서 IBJ(Inner Ball Joint assembly)제품 한가지 차종만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었지만, 2010년도에 현재의 공장으로 옮기게 되었고 현재는 개발품까지 포함하여 45개 차종의 제품을 생산 및 개발을 하고 있다.

Q 내가 생각하는 장가항 법인의 경쟁력은?

A. 제품기획 단계에서부터, 제품판매 및 서비스, 그리고 그 이후의 품질문제 개선활동 및 감사 단계까지의 다른 업체보다 뛰어난 품질보증시스템이 확립 되어있다. 그리고 본사에서 원재료를 공급받아 장가항 법인에서 생산하는 수직적 생산관계, 창립 멤버의 관리직원들이 현재까지 근무함으로써 장가항 법인에 대해서 뽕속까지 알고 있어 인적자원이 뛰어나다.

Q 장가항법인장으로 느끼는 보람은?

A. 장가항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여 완성된 자동차를 주위에서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 자동차는 장가항 법인 제품을 사용한다'라고 말할 때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장가항 법인이 2007년 창립할 당시에 입사했던 관리직원들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장가항 법인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 관리직원들도 같이 화목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도 역시 보람을 느낀다.

Q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은?

A.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국과 중국간, 중국내 지역간 문화적 차이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한국에서는 당연히 여기던 문화가 중국에서는 통용되는 문화가 아니거나 중국이 워낙 큰 국가이다보니 각 지역마다 다른 문화로 인해 본지방 직원 및 다른 지역 직원들로 구성된 장가항 법인에서 처음에는 단결되고, 한 목소리를 내기에 힘들었으나 서로 국가간, 지역간 문화를 이해하고 배려함으로써 현재는 극복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다.

Q 앞으로의 포부

A. 지금 장가항법인은 발전해 나가는 과도기 상태로 현재 건설중인 제 2공장이 완성이 되면 시발점으로 하여 중국에 진출한 모든 글로벌 업체와 거래를 하고 동종 업계 중에서 최고가 될 생각이 다. 물론 이것은 총경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장가항법인 직원들과 본사 및 임직원분들의 많은 노력과, 관심, 협조가 하나로 뭉쳐졌을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로 뭉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

제품 결함 0%에 도전한다! 원재료 표면 흠을 알아보자!

모든 제품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제품의 결함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우리 태양금속공업에서 제조 및 판매 하는 제품은 대부분 냉간 단조 또는 압조라는 소성 가공을 통하여 제조되는데, 원재료인 냉간 압조용 강선(CHQ Steel Wire)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특징적인 결함(defect), 아니 정확하게 말하여서는 흠(flaw)이 자주 관찰된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재료의 흠은 냉간 압조용 강선 또는 강선재의 제조과정과 그 발생 과정을 이해하면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그 제조과정과 발생과정을 이해하면 흠을 억제 또는 최소화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제품에서 발생한 실례와 더불어 우리가 냉간 단조에 투입하는 강선의 제조과정을 이해하고, 표면 흠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우리가 원재료로서 사용하는 냉간 압조용 강선에 대하여 이 기회에 확실하게 그 정의를 짚어보기로 하자.

우리 태양에서 사용하는 원재료는 엄밀하게 정의하면 냉간 압조용 강선, 영어로는 CHQ(Cold Heading Quality) Wire라고 부른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강선은 국내/외 철강사로부터 제조되는 선재(Wire Rod)를 원재료로 하여 선선, 피막 및 열처리 공정을 거쳐서 강선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림 1에서 선재와 선의 차이를 정리하였다.

철강사에서 제조되는 선재는 우리 태양에서는 직접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이것은 열간 압연을 통하여 제조되기 때문에 정확한 선경(wire diameter)을 가질 수 없고, 정확한 원의 단면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정밀한 제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반 제품 상태 또는 중간 가공품이기 때문에 그다지 정밀한 필요가 없을뿐더러, 정밀하게 만들 수도 없다.

표면 흠은 크게 나누어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재 또는 압연성 흠과 주로 취급(운반 및 이송 등) 흠으로 분류된다. 실제 표면 흠은 냉간 단조 제품에서도 관찰되는데, 이것은 원재료에서 발생한

[CHQ 선재(Wire Rod)]

- 철강사(POSCO, 현대제철 등)에서 제조
- 주로 단중(단위 중량) 2,000kg 단위
- 선경 : 11.0, 15.0 및 20.5mm 등 집단적
- 열간 가공(Hot working)으로 제조
- 선재의 단면(C-방향 절단)

[CHQ 선(Wire)]

- 1차 가공사(세아, 동부특수강 등)에서 제조
- 고객요구에 단중(단위 중량) 200~2,000kg 단위
- 선경 : 9.85, 11.2 및 20.1mm 등 구체적
- 냉간 가공(cold drawing)으로 제조
- 선재의 단면(C-방향 절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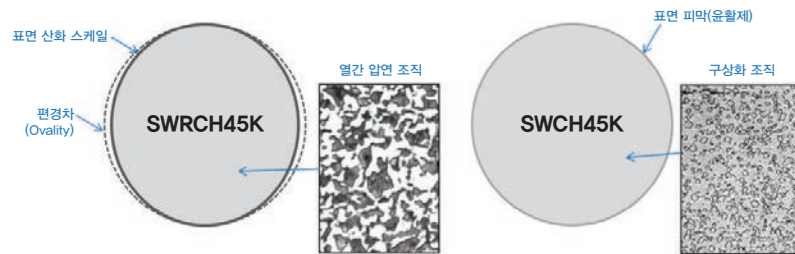


그림 1. 냉간 압조용 강선재 및 강선의 차이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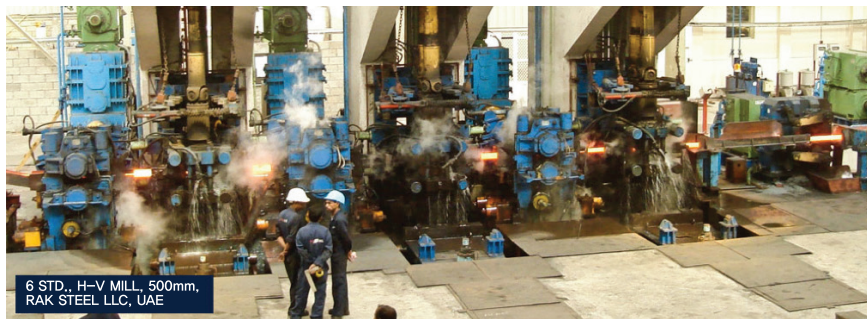


그림 2. 일반적인 선재 압연 공장의 형태. 길이가 약 100m 이를 정도로 직선으로 긴 공장의 형태를 가진다. (사진 출처 <http://www.amech.in>)

표면 흠이 제품까지 잔존하여 나타나는 경우인데, 본 글에서는 냉간 단조에 의한 터짐(burst) 현상은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철강사 제조과정 외에도 선선 및 열처리사의 공정 중에도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 가령 선선 시 선선 다이스 내부에 이물질을 고착되어 표면 흠을 만드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실제 거의 관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원재료의 표면 흠의 가장 큰 특징은 그 폭이 좁고 길이가 비교적 길다는 것이다.

그림 2에서와 같이(물론 사진 한 장에는 모두 표현할 수 없지만...) 선재 공장은 그 길이가 매우 길고, 최종 압연 단계에서의 선재 이동 속도는 약

100m/s에 이른다. 따라서 어떠한 결함 즉, 압연 롤에 이물질이 부착되거나, 선재 표면에 굽힘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빠른 압연 및 이동 속도로 인하여 선재 길이방향으로 매우 긴 흔적을 남기게 된다. 실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제품에서 관찰할 수 있는 스크래치(scratch)가 이렇게 발생되거나, 심(seam)이라 불리는 흠의 한 종류이다. 물론 심(seam)은 그 발생원인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자주 관찰할 수 있는 흠이므로 이번 글에서는 이 심(seam)성 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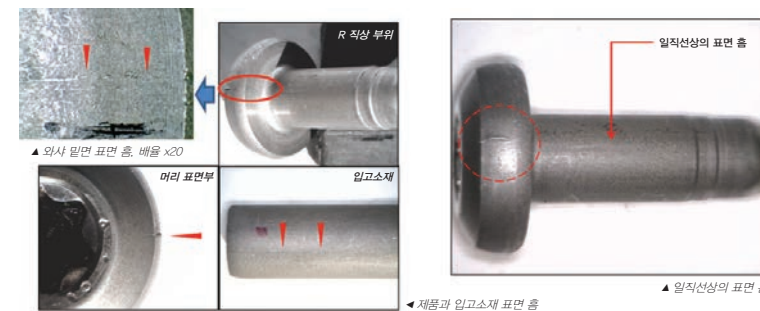


그림 3.

제품의 외관에서 관찰되는 심(seam)성 흠의 대표적인 예. 주로 머리부 성형 시 제품의 길이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터짐의 형태로 관찰되며, 몸통 부위 즉, 인장응력을 받지 않는 부위에서는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을 만큼의 미세한 이음매(seam) 형태로 관찰된다.

그림 3에는 제품에서 흔히 관찰되는 심(seam)성 흠의 대표적인 사례를 나타내었다. 보통은 제품의 기계적 특성에는 크게 영향은 없으나, 고객사 외관 흠으로 분류될 수 있고 차질 사용 중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 부적합 처리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주요한 특징은 머리 부와 같이 소성가공량이 많은 부위에서 크게 관찰되며, 이것을 실제 현미경을 통하여 보다 확대하여 관찰하게 되면, 제품의 동일 선상에 길이방향으로 평행하게 관찰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즉, 원재료에 잔존하는 이러한 흠은 관찰되기 어려우나 높은 변형량을 가지는 부위에서는 보다 크게 관찰된다. 이 제품을 절단하여 단면을

관찰하게 되면 그림 4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냉간 단조 직후에 발견되었다면, 내부에는 고온에서 열려있었던 흔적, 약간의 탈탄이나 조대한 결정립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은 주로 고온에서 열려 있었기 때문이며, 다시 말하면 고온 압연 시 불상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일 열처리 후 또는 완제품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된 미세조직의 이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고온에서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몸통 부위에서의 흔적을 찾고 이것을 머리 부에서 발생한 흠과 연결하여 원재료의 부적합 원인 즉, 심(seam)성 표면 흠으로 귀결 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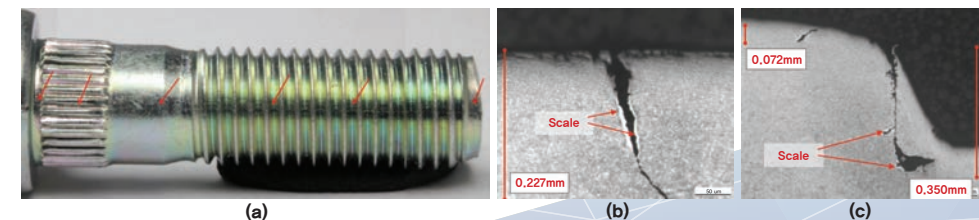


그림 4. 제품의 외관에서 관찰되는 심(seam)성 흠의 또 다른 실제 예(a). 부위 별로 단면을 절개하여 관찰하여 보면 (b) 및 (c)와 같이 표면 흠은 제품의 지름방향으로 발달하였고, 간혹 겹친 부위도 나타난다(c). 또한 내부에 흰색의 스케일 층이 관찰되는데, 이것은 주로 고온에서 발생한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와 같은 흠을 연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철강사 및 선선/열처리사에서는 와류 탐상 장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미리 탐상하여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선재 제품의 여러 가지 특징에 의하여 상당히 곤란한 실정이다. 가장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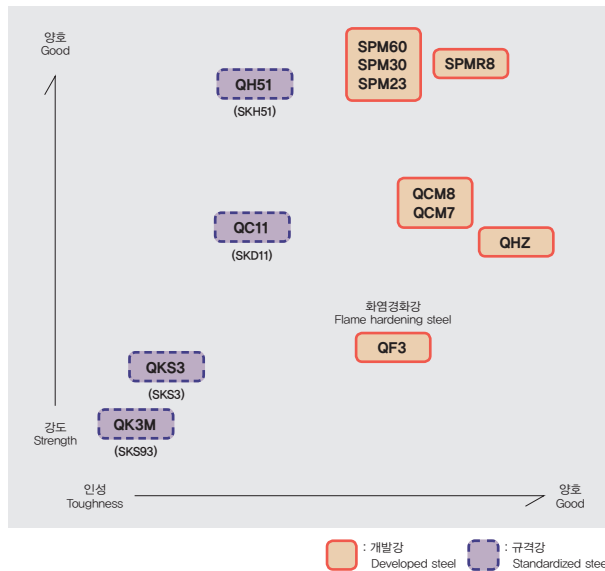
편한 것은 이와 같은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선재의 특징이라 여겨져 오고 있으나, 이를 사용하는 고객사에서는 불량률 0%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것이다.

금형을 위한 고신뢰성 강의 개발

고강도 및 복잡한 형상의 개발품이 늘어남에 따라 공법 개선만으로는 금형수명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여러 금속업체에서 금형을 위한 새로운 강을 개발하여, 다양한 수명 향상을 위한 개발이 실시되고 있다. 이 중 현재 수명검증 테스트 진행중인 SANYO-STEEL의 적용의 예를 소개하도록 한다.

1. 신개발 강의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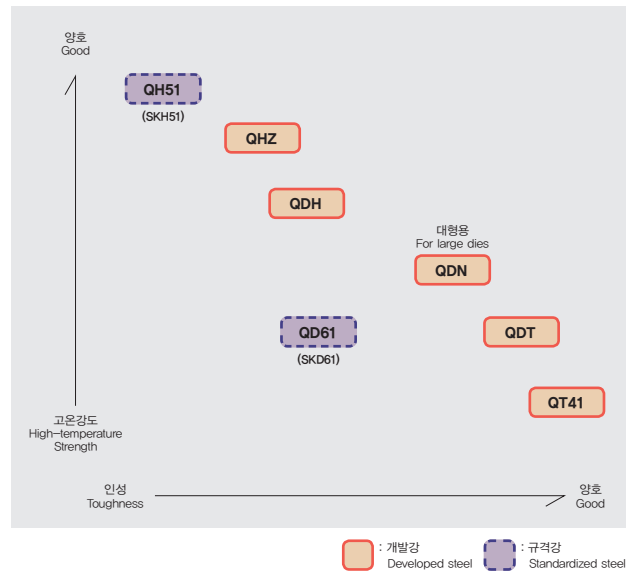
1) 냉간가공 / 프레스용 강



냉간금형의 손상요인과 대책

- 마모방지 → 강도 ↑
- 깨짐 / 꺾어짐 방지 → 강도 ↑
- 부러짐 방지 → 인성 ↑

2) 열간 / 온간 단조용 강



열간/온간 단조용 금형의 손상요인과 대책

- 마모(뒤틀림, 주저앉음)방지 → 고온강도 ↑
- 열균열 방지 → 고온강도 ↑
- 깨짐, 부러짐 방지 → 인성 ↑

구분	종류	주사용	대체강종	비고
기존	SKH51	PIN		
기존	SKD11	PUNCH		
기존	SKS3	SPACER		
기존	SKD61	PUNCH, RING		
신규	SPM23, 30, 60			
신규	SPMR8		ASP23	PUNCH PIN TEST
신규	QCM7, 8		SKD11	PUNCH TEST TR PUNCH
신규	QHZ			
신규	QF3			
신규	QDH		SKD61	PUNCH TEST
신규	QDN			
신규	QDT			
신규	QT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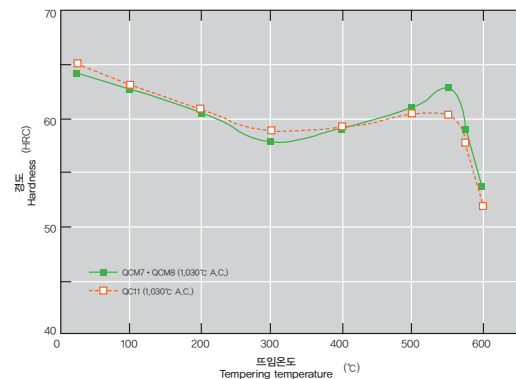
2. 신개발강의 특징

기호	용도	특징
분말하이스 SPM 시리즈	프레스, 냉간단조, 파인블랭킹	SKH와 비교 고경도, 고인성
QHZ	프레스, 냉간단조, 파인블랭킹	고강도와 고인성을 겸비한 매트릭스 하이스
QCM7	중적삭을 동반하는 자동차 부품 프레스 성형	SKD11와 비교 고경도 고인성, 피삭성 및 방전 가공성 양호
QCM8	프레스, 냉간단조, 파인블랭킹	SKD11와 비교 고경도 고인성, 피삭성 및 방전 가공성 양호
QF3	프레스	고인성 화염경화용 공구강, 담금질 온도 범위가 넓고, 경도의 흐트러짐 적음
QDH	프레스, 열간성형, 열간/온간 단조	SKD61의 인성과 SKD7(3Cr-3Mo)의 고온강도를 겸비
QHZ	프레스, 열간성형, 연간/온간 단조	인성과 고온강도를 겸비한 매트릭스 하이스
QDN	프레스	대형금형에 최적, SKD61과 비교 담금질성, 인성 질화특성이 양호
QDT	프레스 / 해머	SKT4의 인성과 SKD61의 고온강도를 겸비

3. TEST 진행중인 강

1) QCM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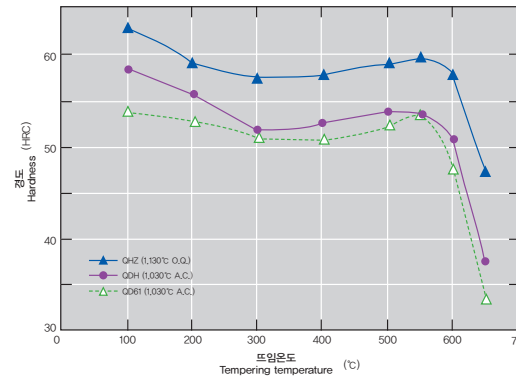
고강도 고인성을 갖춘 냉간 다이스 강으로, 강중 탄화물의 크기를 제어함으로써 경도, 인성, 피로강도, 내마모성등이 전반적으로 SKD 11을 능가하여, 금형 수명의 대폭적인 개선 실현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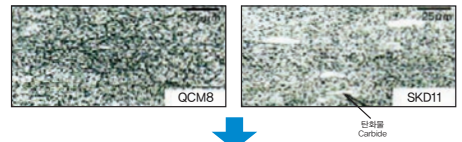
현재 SKD 11종을 사용하는 금형 중 파손 및 마모가 심한 두가지 금형을 선정하여, TEST 진행중으로 열처리 경도를 HRC 55, 60.5, 61, 61.5 정도로 구분하여 수명 확인을 위한 준비중이다.

2) QD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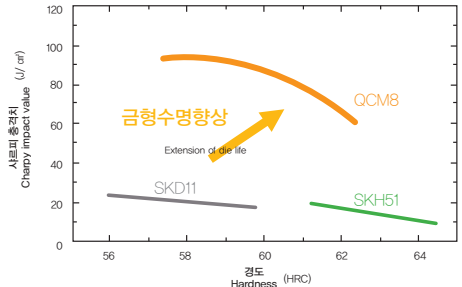
SKD 61 급의 인성에 열처리성을 더하여 SKD7 정도의 우수한 고온 연화 저항성을 겸비하여, 높은 수명효과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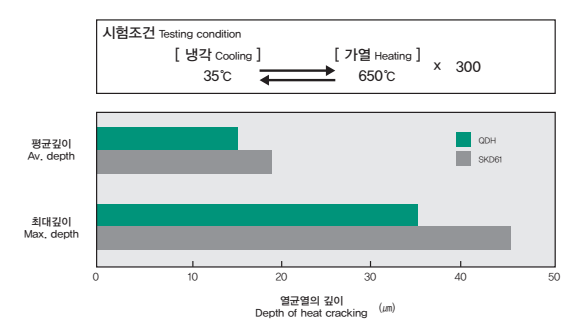
■ QCM8의 마이크로 조직 Microstructure



■ QCM8의 경도와 인성 Hardness and toughness



■ QDH의 열 균열 저항성 Heat cracking resist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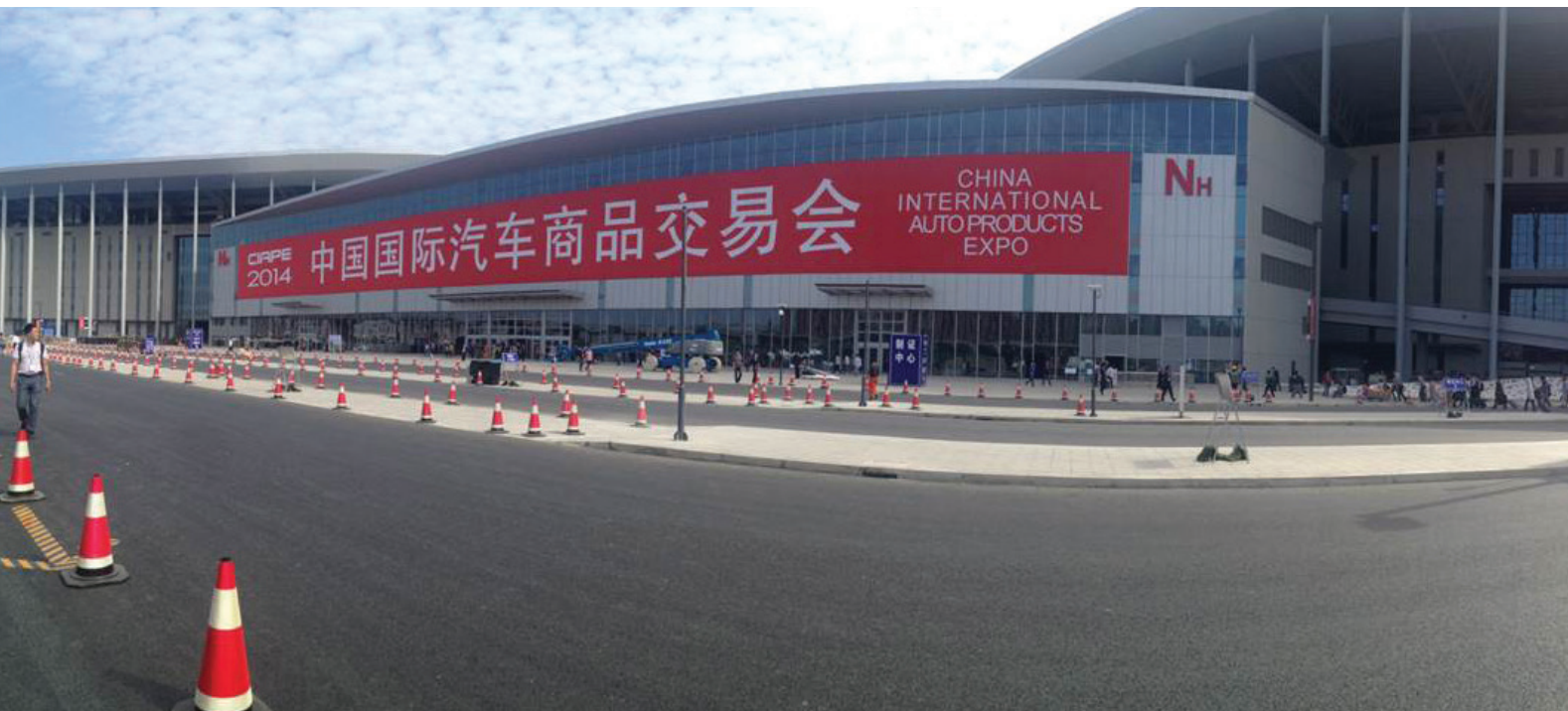


현재 SKD 11종을 사용하는 금형 중 파손이 심한 펀치를 선정하여, 위의 QCM 8과의 비교 테스트를 위하여, TEST 진행중에 있으며, 열처리 경도는 HRC 53, 54.5 정도로 구분하여 수명 확인을 위한 준비중이다.

2014 상하이 자동차 부품 전시회를 마치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자동차 산업의 기술들

수많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지난 1년 동안 끊임없는 노력으로
일궈낸 한 단계 더 성장한 기술 및 제품을 선보이게 되는 자동차 부품
전시회가 10.19~22일까지 나흘간 진행되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태양금속공업 제품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알리기 위하여 연대법인 김학태 부장님,
장가항 법인 조용훈 총경리님과 함께 상하이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 자동차 시장

태양금속공업의 이름과 제품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업체의 기술
력과 자동차 산업의 미래 동향을 살피기 위한 목적도 가진다. 한국업체의 많은 참가자가 중국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제품을 확
인하고는 금세 표정이 어두워진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글로벌 업체 사이에서는 중국 자동차 부품 업체는 품질 면에서 한국업
체의 벽을 넘지 못한다는 인식이 팽배했으나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지난 몇 년간 지속되어온 중국의 가파른 자동
차 산업의 성장을 통하여 중국 업체의 기술은 이제 한국업체의 턱밑까지 추격해왔다. 중국경제의 자본의 힘과 경제성장의 위엄
이 참가자들에게 전해진다.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자동차 산업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업체는 바로 전기자동차 업
체의 선두주자인 “테슬라”. 지난 2003년 설립하여 10년간 계속
하여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였지만 2014년 비로소 흑자를 기록
하게 되었다. 화려한 테슬라 부스와는 반대로 자동차 업계 참가
자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다. 나 또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된다. 테슬라의 전기자동차는 기존의 자동차와는 달리 엔진이 없
으며, 모터가 엔진의 기능을 대신한다. 태양금속의 주력 제품군
이 엔진 볼트임을 생각하니 앞으로 태양금속공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엔진이 없는 테슬라 자동차

태양금속공업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2천만 대를 넘어서며 양
적으로는 세계 5위권의 자동차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미래 자동차 산업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이제 태양
금속공업도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다. 우리 태양금속공업은 올해 창립 60주년이
라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일궈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더 많다는 걸 느낀 자리였다. 자동차 부품시장
이 해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지만, 태양 가족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위기를 헤쳐나가 올해의 창립 60주년이 과거의 영광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본다.



해외영업팀 이두원 사원

멈추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기업



오성케미칼 김종구 대표 인터뷰

태양금속 창립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해에 태양금속 사보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30년의 역사, 오성케미칼]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위치한 오성케미칼은 우리나라 뿌리산업의 대표 업종 중 하나인 금속 표면처리업체로 1984년 설립, 올해로 3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역사는 오래됐지만 표면처리 업종의 특성상 회사가 성장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환경 부분에 엄격한 업종이다 보니 회사를 이전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 제품이다 보니 눈에 띄는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도 없죠.”

표면처리는 나사에 코팅을 가해 제품이 완성되는 과정으로 뿌리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반해, 결과적으로 그만큼의 대가가 돌아오는 사업은 아니라는 게 김종구 대표의 의견이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역할을 하는 만큼 내 주머니가 무거워지는 것보다는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이 사업의 매력이다.

[업종 다변화의 발판을 마련하다]

태양금속과 인연을 이어온 지도 어언 20년이 다 됐다. 당시 군포에 터를 잡고 있던 오성케미칼은 IMF 외환위기로 나라 전체가 휘청거릴 때, 오히려 그 고비를 기회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했다.

“저희 회사가 군포에 있던 시절에는 수처리로 인산염 피막처리 포스페인팅만 했었어요. 그러다 1997년쯤 태양금속과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당시 태양금속에서는 기능성 스티드 볼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의 공장으로 이전해 오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는 태양금속의 스티드 볼트 아웃소싱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가 업종 다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새로운 고객이 생기면서 이제는 기능성 코팅처리 부분이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단계가 된 만큼 태양금속과의 만남은 오성케미칼이 오래도록 장수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감성산업의 시대에는 감성경영이 통한다]

“옛날에는 자동차가 굴러가기만 하면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눈으로 가야 해요. 소리 없이 감성으로 가야 하는 시대인 거죠. 그런 제품에 함께 가기 위해서는 경영 역시 감성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직원들과의 교감이에요. 특히나 우리 업종은 사람을 구하기가 참 힘든 업종이에요. 그러다 보니 함께 하고 있는 직원들과 오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어서인지 고맙게도 우리 회사 직원들의 이직률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감성이 중요한 시대라는 건 이제는 품질만으로는 승부를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달리 말해 품질은 이제 경쟁력이 아닌 당연히 갖춰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것. 품질이 무너지면 감성과 같은 그 이외의 차별화는 이미 가치 있는 경쟁력이 될 수 없는 만큼 기본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 산업에 발을 디디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품질 경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베스트 제품은 베스트 설비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베스트 설비란 기계적인 부분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소프트웨어인 맨파워가 중요하죠. 저 역시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순을 조금 넘긴 김종구 대표는 여전히 공부를 멈추지 않는다. 급변하고 있는 만큼 산업의 트렌드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하고, 그에 따르는 새로운 시장과 먹거리를 창출해 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앞으로 미래 자동차는 신소재, 환경에너지로 가게 돼요. 자동차가 경량화 되고, 엔진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어릴 때 보던 공상 만화가 현실이 되듯 자동차 산업 역시 여전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같은 업종은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브레이크 쪽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국내,외의 많은 메이저 회사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다. 그에 따르는 수많은 시간과 인재들이 성공의 배경이 되었듯이 오성케미칼 역시 회사의 성장을 위해 시간과 인재 발굴에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 김종구 대표의 다짐이다.

옛 그림 속 기인들

‘단원도’에서 찾은 김홍도와 두 사람



단원도(檀園圖)는 창해(滄海)정란(鄭蘭)이 경상도 안기역(安寄驛)으로 김홍도(1784년 40세, 안기찰방 시절)를 찾았을 때 작별에 임해 김홍도가 그려 선사한 그림이며, 기록된 내용으로 보아 3년 전인 1781년 4월 1일에 김홍도의 집 ‘단원(檀園)’에서 정란, 강희언 등 세 사람이 조출한 풍류 모임을 가졌던 때를 회상하여 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속의 글

“창해 선생께서 북으로 백두산에 올라 변경까지 다다랐다가 동편 금강산으로부터 누추한 단원으로 나를 찾아 주셨으니, 때는 신축년(1781년) 청화절(淸和節, 4월 1일)이었다. 뜰의 나무엔 햇별이 따스하고 바야흐로 만물이 화창한 봄날에, 나는 거문고를 타고, 담줄 강희언은 술잔을 권하고, 선생께서는 모임의 어른이 되시니 이렇게 해서 참되고 질박한 술자리를 가졌도다. 어연간에 해가 다섯 차례나 바뀌어 강희언은 지금 세상에 없는 옛 사람이 되어 가을 측백떨기에는 이미 열매가 열렸다. 나는 궁색하여 집안을 돌보지 못하고 산남(山南)에 머물러 역마를 맡은 관청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해가 장차 한 차례 돌아오게 되었다. 이곳에서 홀연히 선생을 만나게 되니 수염, 눈썹, 머리칼 사이에는 구름 같은 흰 기운이 모였으되 그 정력은 늙어서도 쇠하지 않으셨다.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올 봄에는 장차 제주도의 한라산을 향하리라 하니 참으로 장하신 일이다. 다섯 밤낮으로 실컷 술을 마시고 원 없이 이야기 하기를 단원에서 예전에 놀던 것처럼 하였더니, 슬픈 느낌이 그 뒤를 따르는지라, 끝으로 <단원도>한 폭을 그려 선생에게 드린다. 그림은 그 당시의 광경이고 뒷면의 시 두 절구는 당일 선생께서 읊으신 것이다. 갑진년(1784) 12월 입춘(立春) 2일 후에 단원주인 사능 김홍도가 그렸다.”

정란의 시

금성산(錦城山)동편 물가에 지친 노새를 쉬게 하고 석 자 거문고로 초면 인사를 나눴네
‘흰눈 남은 따스한 봄’ 한 곡조를 타고 나니 푸른 하늘 넓고 고요해 바다와 하늘 빈듯 하네
단원거사(김홍도)는 풍채와 태도가 번듯했고 담줄(강희언) 그 사람은 강하고 기이 했도다
누가 흰머리 늙은이(정란)를 영남의 객이 되게 해서 술잔 부딪고 거문고 타며 미치광이 노릇하게 하나.

창해옹(정란)이 짓다.

그림속의 세 사람 정란, 강희언, 김홍도

창해(滄海) 정란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각지의 명승을 따라 전국을 누볐던 기인이다. 이용휴의 혜환시초(惠丸詩鈔), 신경준(申景濬)의 여암유고(旅菴遺稿), 강세황의 표암고(豹菴稿), 채제공의 변암집(樊巖集), 정변조의 해좌선생문집(海左先生文集)등에 그의 기행과 관련된 여러 편의 글이 전해진다. 신국빈(申國賓)의 태을암집(太乙菴集)에는 제정창해백두산도발(題鄭滄海白頭山圖跋)이라는 글이 있는데, 여기에는 정란이 최북으로 하여금 <백두산도>를 그리게 했다는 내용도 보인다.
성대중(成大中, 1732~1812)은 청성집(靑城集) 서창해일사화첩후(書滄海逸士畫帖後)에서 정란이 여행가로 워낙 유명해서 “그가 바다를 바라보고 산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소장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적었다. 또 그의 얼굴이 당시 향간에 전하던 서양 신부 이마두상(利瑪竇像)과 닮았으며, 눈썹이며 광대뼈가 늙을수록 기고(奇古)해 우사인인(羽士異人)같다고 했는데, <단원도>에 보이는 인상이 과연 그러하다. 이명오(李明五, 1750~1836)의 박옹시초(泊翁詩鈔)에는 제창해자풍악기행권(題滄海子楓岳紀行拳)이라는 시가 있어 금강산 기행시집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대동시선(大東詩選)에 한시 세 수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송석원시사(松石園詩社)의 일원으로 중인이었다고 생각된다. 정란은 당시에 유명했던 등산가, 여행가이자 기행시인으로서 자연히 그림에도 각별한 취미가 있었으며, 나중에 보듯이 1788년 김홍도와 김응환이 금강산을 봉명사경(奉命寫景)할 때도 장안사(長安寺)에서 합류할 만큼 친했다.
담줄 강희언은 그림을 잘 그렸던 운관(雲官)으로 1754년 운과(雲科)급제 후 조지별제(造紙別提), 의영주부(義盈主簿)를 거쳐 순천(順川) 감목관(監牧官)에 이르렀다.

그림속의 시에서 정란은 그 날 세 사람의 면면을 회상하였다. 여기서 정란은 김홍도를 일러 “단원거사는 풍채와 태도가 번듯했다”고 하였으며 “담줄 그 사람은 강하고 기이 했도다”라고 하였다. 왼쪽 위에 “고송유수관도인 이문옥이 보았다(古松流水館道人李文郁觀)”는 관화기(觀畫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김홍도 참방 시절 중 언젠가 이인문이 먼 곳에 있는 친구 김홍도의 이 작품을 정란으로부터 얻어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기름진 들과 풍부한 바다, 고즈넉한 산들이 어우러진 천혜의 비경을 품은 도시 ‘군산’



햇볕 따뜻한 날에 군산을 만나다.
특히 휴가를 내지 않고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곳.



“

내 기억 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게 해 준 당신께
고맙다는 말을 남깁니다.

”

연인과는 그린라이트를 켜고, 아이들에게는 꽃보다 아빠가 되고,
친구와는 없던 우정도 만들어 줄만한 그런 곳—
냥만이 있는 곳 ‘군산’을 소개한다.



8월의 크리스마스 와 일본식 가옥_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진사와 주차단속원 여자 사이에 피어나는 잔잔한 감정을 그린 한석규, 심은하 주연의 8월의 크리스마스. 남자는 떠났지만 우리에게 남긴 것이 있다. 바로 ‘초원 사진관’이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초원 사진관은 이제 군산의 대표 명소 중 하나다.

하지만 이곳이 더 매력적인 이유는 초원 사진관 때문만은 아니다. 사진관을 시작으로 일본식 가옥을 체험할 수 있는 숙박시설 ‘고우당’과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히로쓰 가옥’이 가깝게 위치해 있는데 이곳들을 찾아가기 위해 아담한 골목을 걷다 보면 마치 영화 속으로 나의 삶이 들어가듯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찾아온다.

초원 사진관과 히로쓰 가옥이 위치한 신흥동 일대는 일제강점기 군산 시내 유지들이 거주하던 부유층 거주 지역으로 포목점을 운영하던 히로쓰 게이샤브로가 지은 주택이 한국제분의 소유로 넘어가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다. 잘 알려진 영화 ‘장군의 아들’부터 ‘바람의 파이터’, ‘타짜’까지 많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이 주택에서 촬영될 만큼 일본식 가옥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다.



경암동 철길마을_

군산의 중앙을 빠져나와 차로 5분 정도만 가면 1944년에 만들어진 철길 마을이 나타난다. 좁은 철길을 따라 여전히 자리잡고 있는 집들을 보고 있으면 참 묘한 기분이 든다. 철길을 사이에 두고 빨랫줄이 걸려있고, 장독대도 보인다. 2011년 6월에서야 65년간의 통행이 멈췄는데 그때까지 술하게 지나갔을 기차의 굉음과 공포스러운 땅의 울림을 낚은 판잣집들은 어떻게 견뎌냈을까. 나도 모르게 ‘기차길 옆 오막살이~아기 아기 잘도 잔다~’노래가 흥얼거려진다.

군산은 그런 곳이었다. 내가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추억이 있는 곳. 시대를 통해, 그리고 매체와 구전동요를 통해 나에게도 기억되는 추억의 도시.



이성당

골목을 나와 도로변으로 조금만 나오면 길게 줄지어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성당의 대표 메뉴인 ‘앙금빵과 야채빵’을 사기 위해 서있는 사람들이다. 이성당은 앙금빵과 야채빵을 제외한 빵의 종류도 다양하고 줄을 서지 않고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규모를 자랑하지만 이 두 가지 빵만큼은 빵이 구워져 나옴과 동시에 사라지는 마술을 보여주기 때문에 줄을 서서라도 꼭 먹어봐야 할 대표 빵이다.

WHO ARE YOU?

Dream		2 	3 
4 	I'm Taeyang	Challenge	5 
6 		8 	9 
10 	11 	12 	13 

INTRODUCE

성명 입사일 부서 취미/특기 장점 각오(또는 하고 싶은 말)	1 • 진영자 • 14.08.20 • 제품관리과 • 탁구/요가 • 끈기있는 성격 • 태양금속이란 큰회사에 입 사하게 되어 기쁘고 세 아이들 앞에 자랑스럽습니다.	2 • 황선우 • 14.08.22 • 품질보증팀 • 조깅 • 꾸준함 • 아직 서투르지만 잘부탁드립니다!	3 • 원희재 • 14.08.26 • 제품관리과 • 문화생활/노래하기 •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 맡은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 이만행 • 14.09.11 • 제품관리과 • 독서 • 긍정적인 사고 • 열심히 살기	 TAEYANG METAL INDUSTRIAL	우리회사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5 • 박종재 • 14.09.12 • 제품관리과 • 여행/운동 • 긍정적마인드 • 맡은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 심재현 • 14.09.25 • 생산2반 • 볼링 • 열심히 살려고 하는 노력형 • 늦은 시작만큼 최선을 다하 는 모습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 • 오명식 • 14.09.26 • 생산2반 • 독서/음악감상 • 긍정적임 • 열심히 하겠습니다.	8 • 이경미 • 14.10.22 • 생산3반 • 우표수집 • 원만한 성격과 책임감이 강함 • 태양처럼 모나지 않고 둥글 게, 밝은 마음으로 새로운 가족들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9 • 김태균 • 14.10.29 • 생산관리과 • 족구/축구 • 조직에 쉽게 녹아들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울리는것을 좋아합니다. • 태양금속공업이 성장하는데 큰 보탬이 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10 • 김시진 • 14.10.29 • 품질보증팀 • 여행/축구 • 긍정적인 사고 •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 • 권준우 • 14.10.29 • 설계개발팀 • 당구/노래부르기 • 뭐든지 열심히 합니다. •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12 • 임은탁 • 14.11.03 • 품질관리팀 • 수영 • 성실 • 안녕하십니까? 품질관팀 사원 임은탁입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임하겠습니다!	13 • 강성묵 • 14.11.10 • 생산관리팀 • 운동/야구 • 상대방을 잘 배려하고 솔직한 성격 • 언제나 긍정적 생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청운의 꿈이어~ 계속되라!!

새로이 태양식구가 되신 신입사원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며 아울러 회사와 국가경제의 미래를 짊어질 양어깨를 응원합니다. 승진과 전보로 더욱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되신 사우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하세요.

입사							
8월 20일	진영자	사원	제품관리과	10월 6일	허영준	사원	표면처리과
8월 22일	황선우	사원	품질보증팀	10월 17일	김영중	부장	인도법인
	노태식	사원	생산5팀		조규남	사원	생산2반
8월 26일	원희재	사원	제품관리과	10월 22일	이경미	사원	생산3반
9월 2일	박윤희	사원	생산5팀	10월 29일	김태균	사원	생산관리과
9월 11일	이만행	사원	제품관리과		김시진	사원	품질보증팀
9월 12일	박종재	사원	제품관리과		권준우	사원	설계개발팀
9월 25일	심재현	사원	생산2반		박상윤	사원	생산2반
9월 26일	오명식	사원	생산2반	11월 3일	전종오	반장	생산1반
					임은탁	사원	품질관리팀
				11월 10일	강성묵	사원	생산관리팀

인사발령

9월 4일

부장 최동각 / 생산기술팀장 → 공장혁신 TFT 전담
차장 김성태 / 공장혁신 TFT 전담 → 생산관리팀장
차장 이상규 / 생산기술팀장 직무대행
과장 윤태일 / 업체협력팀 → 생산관리팀 생산지원과장
과장 최철용 / 생산관리팀 → 업체협력팀
사원 박성은 / 생산기술팀 → 공장혁신 TFT 전담

9월 12일

부장 민광희 / 장기항법인 파견 총경리 직무대행 겸무
→ 장기항법인, 연대법인 공장간설 감독 겸무

9월 22일

부장 최순환 / 영업소 물류통합 추진 TFT 팀장 겸무
부장 최동배 / 영업소 물류통합 추진 TFT 간사 겸무
부장 심상진 / 영업소 물류통합 추진 TFT 팀원 겸무
차장 김종호 / 영업소 물류통합 추진 TFT 팀원 겸무
차장 김성수 / 영업소 물류통합 추진 TFT 팀원 겸무
차장 김동국 / 영업소 물류통합 추진 TFT 팀원 겸무
과장 김동주 / 영업소 물류통합 추진 TFT 팀원 겸무
대리 김영창 / 영업소 물류통합 추진 TFT 팀원 겸무

10월 6일

사원 이재원 / 재경팀 → 인도법인 주재원

10월 20일

차장 김동국 / 품질관리팀 → 인도법인 주재원

10월 20일

부장 김광두 / 인도법인 주재원 → 장기항법인 주재원



“행복한 가족주의”

태양금속은 변치 않는 믿음과 변치 않을 사랑으로 한결 같이 걸어온 가족애가 있습니다.

“직원과 회사, 그리고 직원 가족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반세기를 걸어온 기업정신이 있습니다. 환한 미래를 여러갈 신뢰와 창조의 정신으로 百年大計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